

# 민주, '전남 정치 1번지' 목포시장 경선 치열

## 목포고 선후배 정종득-홍영기 2파전

### "조직력으로 승부" "후보 단일화 바람"

전남의 정치 1번지인 목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경선이 정종득 현 시장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종득 현 시장이 탄탄한 조직을 토대로 '수성'이 나가고 있는데 맞서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2단계 후보 단일화를 통해 세를 불러나가고 있다.

일단 전체적인 관세는 정종득 현 시장이 조직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맹추격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경선이 오는 20일 치러진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누구의 승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과 수준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종득 시장 측에서는 '목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 눈 팔지 않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홍 전 청장이 내세우고 있는 2단계 후보 단일화도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 정책 등을 내세우며 표밭 같이 나서고 있다. 31층 규모의 주상복합형 생동이 빌딩 건설을 통해 목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대성지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삼학도 복원화 사업 등을 통해 예전 원도심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목포는 서남권 중핵도시와 국제적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목포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박지원 의원의 노골적인 지지의사 표명은 정시장의 가장 큰 자산. 박의원은 연초 당원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정시장에 대한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맞서고 있는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시장의 3선에 대한 시민 거부감이 큰데다 과거의 토목 및 건설형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요구하는 민심이 부응할 수 없다

며 막판 역전극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으며, 지지율 상승 속도에도 탄력이 불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신안 출신인데다, 당초 서울 중구 청장 후보로 민주당에 영입된 인사라는 지적과 관련, 홍 전 청장은 "신안이 고향이지만 목포에서 성장했으며,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같다"며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면 경쟁이 치

열한 목포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청장은 원도심 활성화 문제와 관련, "정 시장은 땅 파고, 건물 짓는 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70년대 방식"이라며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 등을 최대한 살리는 등 목포를 문화적 중심지로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포고등학교 선배(정 시장)와 후배(홍 전 청장) 사이의 경선전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탈법 선거 운동과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고교 선후배라는 점에서 목포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 등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두 후보가 '전남 정치 1번지 목포'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천안함' 대책회의

민주당 이강대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필뉴스

## 민주 기초의원 후보 기호 2-㉠ 잡아라

### 유권자들 중선거구제로 출마자 많아 선택 힘들어

민주당 광주·전남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이 중선거구제로 시행되는 선거에서 ㉠ 기호를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5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 도당에 따르면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각 선거구마다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는 2-㉠, 2-㉡, 2-㉢의 기호를 받게 된다. 이 중 ㉠기호가 인기가 높은 것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기초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면면을 잘 모르거나 출마자가 너무 많아 신중한 선택을 포기하고 민주당 후보 중 첫 번째 후보인 ㉠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6년 지

방선거 때 광주지역 19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기호 ㉠ 후보를 받은 민주당 소속 19명 모두가 당선됐고, 기호 ㉠ 후보들은 6명만 배지를 달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성(姓)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기호를 정하도록 해 형평성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선의 득표 순에 따라 기호를 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예비후보들이 경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반면 민주당 전남도당은 광주시당과 비교해 뚜렷한 기준이 없어 기초의원 4명을 뽑는 화순을 선거구의 경우 나이가 적은 순대로 기호를 정하기도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전남 기초장 경선 불복

### 중앙당에 재심 신청 잇따라

#### 구레이더 담양·나주도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도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경선 탈락자들이 잇따라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담양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유창중 예비후보는 15일 성명을 내고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중앙당에 이날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모 후보 측의 불법·탈법 선거 의혹과 일부 당원들이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나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강인규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 당원 1천828명이

경선 여론조사에 동원된 만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 당일까지 당직자들이 지역 당원 수가 7천419명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여론조사에는 1천828명이 늘어난 9천247명이 참여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불공정 경선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민주당 구례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박인환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했다. 박 후보는 "여론조사가 현직 군수에 유리하게 진행됐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례와 나주와 함께 경선이 진행됐던 곡성군수 경선은 탈락 후보들이 깨끗한 승복을 택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두달남은 전남도의회 기어코 의장 선거 강행

# '막판 감투 챙기기' 철면피

### 강우원·송범근·이영운·이일형 출마

입기를 2개월 밖에 남겨놓지 않은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에 4명의 의원이 입후보, 전형적인 '막판 감투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를 이유로 입시회에 무더기로 불참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면서 자리에만 연연하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특히 전남도의회의 이같은 구태가 '민주당 독점' 구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은 물론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제8대 의회 후반기 의

장 잔여임기 수행을 위해 의장 선출 보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4명의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의원은 강우원(영암1·민주)·송범근(담양2·")·이영운(진도2·"), 이일형(고흥1·") 의원 등 4명으로, 박인환 전 의장이 구례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의장 잔여임기를 배우기 위해 실사된다.

도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입시회를 열고 정경발표를 한 뒤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과반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또 송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과

김성호(함평1·민주) 교육사회위원장이 각각 의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면서 상임위원장 선거도 함께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임기 만료일이 6월 30일로 임기가 70여일밖에 되지 않는데다, 부의장도 있는 탓에 의장을 새로 뽑겠다는 것이 전형적인 '막판 자리 챙기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승용차와 비서가 제공되고 전남도의회 의장이라는 경력을 내세울 수 있는 '감투'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지방 선거가 코앞이고 잔여임기도 짧지만 집행부 공석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용섭 효력정지 처분 신청

### 강운태 "경선 불복 부끄러운 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다 탈락한 이용섭 의원이 15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법에 접수했다.

이 의원은 신청서에서 "강운태 후보 측이 지역 신문사인 H 일보와 계약을 맺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기간 중인 지난 8일 오전 우리 측 지지자들에게 불법 ARS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운태 의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위대한 광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 의원은 경선에 참여했으면 (결과에) 승복해야지, 경선에 패배하자 불복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부동산컨설팅

구 합

-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 연산동 - 오키동(20-25만원)/800평정도/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 벽진동 - 참고용지/500평정도
-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 삼거동 - 2만3천평/상담후결정
-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집
- 중흥동 - 200평/대로집(100%대출가)상담후결정
-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집(100%대출가)
-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집(100%대출가)
-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대로집(100%대출가)
-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 광산구 신원동 - 1500평/50만원 도로집(물류창고 적합)
- 만평 품암지구 수완지구
- 상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공시지가(5억 7천만원)

### 한국부동산 컨설팅

서구청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

음성 케팅의 지원

광주, 전남 최고!  
전통적인 커뮤니티

13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  
국내는 물론 해외 교포들도 직접 연결됩니다  
이제는 물론 해외 교포들도 직접 연결됩니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도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만니다.

지역당정 객안서비스  
전화주소 연결

전국 최저  
요금제 이용!!

1588-3533

\*여성분은 문의시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하트폰

전화정보(ARS) 사업자 모집 | 무제한, 우정보 의뢰만 있으면 됩니다 010. 3608. 2888

##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